국보관

부루나상(산스크리트어: 푸르나)

국보

이 상은 석가모니의 십대제자 중 한 명인 부루나의 상입니다.

부루나는 제자들 중에서도 불법을 설교하는 데 특히 뛰어났다고 합니다. 이 부루나상은 고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상에 섬세한 주름을 새겨 넣어 늙어 보이게 묘사했습니다. 몸을 감싼 옷이나 오른쪽을 바라보는 표정은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.

다른 십대제자상과 마찬가지로 이 상도 734 년의 작품으로 탈활건칠조라는 기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.